

# ‘오월어머니’ 40년 인생 노래가 되다

광주민예총, 15명 삶 음반 제작  
녹음 과정 등 뮤직비디오로 담아  
ACC 극장서 30일 ‘감동의 무대’

‘오월어머니’는 지난 2018년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위해 투쟁을 했던 분들로 5·18이라는 현대사 비극을 온몸으로 겪었던 역사의 산 증인들이다. 5월 당시 자식을 잃었거나 남편을 잃었거나 아니면 고통의 트라우마를 겪었다.



그렇듯 오월어머니들의 가슴에는 국가 폭력에 의해 만신창이가 돼버린 한과 슬픔의 응어리가 맺혀 있다. 자식을, 남편을 잃은 아픔을 묻고 지난 세월을 살아온 어머니들의 사연은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다.

오월어머니의 40년 인생이 노래로 만들어져 눈길을 끈다. 특히 노래 제작을 계기로 열다섯 분의 어머니들이 자신의 인생을 직접 노래하는 귀중한 시간이 마련 돼 ‘감동의 무대’ (30일 오후 5시 ACC 극장2)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18 정신을 계승, 실천하는 광주의 젊은 음악인들만이 반주단과 노래 작곡으로 함께 참여할 예정이어서 의미가 깊다.

광주민예총예술단체총연합회(광주 민예총)은 오월어머니 15명의 삶이 음반과 영상으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음반은 어머니의 노래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며, 옛도청 복원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열다섯 분의 삶이 모티브가 됐다. 노래 제작은 민예총이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과의 3년간의 협업 사업 결과물이기도 하다.

총감독을 맡았던 박종화 광주 민예총 이사장은 “이번 음반은 어머니들의 입을 빌려 오월 당사자들의 피맺힌 40년의 삶을 노래로 기록하고 예술로 승화하는 역사적인 사업”이라며 “좀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너무나 늦었고 그렇게 41년이 지나버렸다”고 말했다.



광주민예총은 오월어머니들의 40년 인생을 담은 음반을 제작했다. (광주 민예총 제공)

당초 이번 음반 제작은 지난 2019년 열다섯 분 어머니의 삶을 구술 에세이와 시로 엮은 ‘어머니의 노래’가 모티브가 됐다. 당시 광주전남작가회 소속 15명 작가들이 어머니들의 인생을 기록으로 담았다. 유은희, 고영서, 박인하, 양인자, 엄수경, 조현숙, 김지원, 정미숙, 이재연, 이진, 문귀숙, 조남희, 함진운, 고영서, 강희진이 구술 채록에 참여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에는 작사와 작곡이 완성됐다. 그동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곡들을 써낸 이경운, 류형선, 김현성, 이지상, 손병휘, 박종화, 한보리, 김원중, 김준범, 이범준이 참여해 어머니들의 40년 한을 가사와 멜로디로 완성했다.

열다섯 분의 어머니는 김길자, 김옥희, 김점례, 김정자, 박유덕, 박행순(박관현 열사 누나), 박형순, 원사순, 이근래, 이명자, 이향란, 임근단, 임원서, 정동순, 추혜성 등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음반, 영상이 완료돼 어머니의 노래 콘텐츠 제작사업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제작사업은 박종화 광주 민예총 이사장이, 음악 감독은 류형선이 맡았다.

기획과정부터 마지막까지 참여했던 추혜성 어머니는 “어머니들이 고령이라 혹여 돌아가시거나 아프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많았다”며 “이렇게 음반이 만들어진 것을 보니 기적이 일어난 것 같고 맺힌 한이 조금은 풀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음반 녹음 과정에서부터 인터뷰, 어머니들 삶의 순간순간이 뮤직비디오 형태로 수록돼 있다. 음반은 시디와 패키지 앨범 두 종류로 제작됐으며 패키지 앨범에는 시디와 노래 가사집, 15곡의 악보, 굿즈형 USB 앨범으로 구성됐다.

이런미 광주 민예총 사무처장은 “앨범 자켓의 이미지는 오월의 꽃이라 불리는 이팝나무꽃이다. 춘궁기에 배고픈 민중들에게 쌀밥의 이미지로 위로가 됐던 이팝꽃은 해마다 오월이면 망월 묘지 가는 길에 서러운 낮들의 마중 꽃으로 피어난다”며 “한 송이의 꽃들이 여러 개 붙은 수북한 꽃은 꼭 오월어머니들을 닮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어머니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음반은 모두 솔로 곡들이라며 “앞으로 음반 콘텐츠가 많이 활용돼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 국립극장에서 공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음반 제작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고 “완성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3년이 걸려 완성한 이번 음반은 역사의 기록이자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다. 향후 광주 5월을 상징하는 의미있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민지, 클라비오 보호르케츠, 이상 앤더스

## 세계적 첼리스트 12명 한무대에서 본다

29일 광주문예회관  
피아졸라·바흐 곡 연주

세계적인 첼리스트 12명을 한무대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특별기획공연 ‘GAC포시즌-박수’를 보내다 : The 12Cellists’가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세계 정상급 첼리스트 12명이 한자리에 모여 활을 마주하는 이번 공연은 20대부터 70대까지 세대와 국가를 넘나드는 화합을 의미하기도 해 더욱 뜻깊은 음악회이다. 공연에서는 바흐부터 피아졸라까지 음악의 역사를 접할했던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려준다.

이번 공연에서는 바흐-류제준의 ‘12대의 첼로를 위한 콘체르탄테’ (2021) 등을 만날 수 있다. 류제준 편곡의 ‘12대의 첼로를 위한 콘체르탄테’

는 첼로의 구약성서라고 불리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제임스 베릴리 편곡의 ‘A. Piazzolla-12대의 첼로를 위한 사계’는 율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곡을 원곡으로 한다.

이번에도 올리우스 클렌켈의 ‘12대의 첼로를 위한 찬가’, 에이트르 빌라 로보스의 ‘소프라노와 12대의 첼로를 위한 브라질풍의 바흐 5번’, 아르보 페르트의 ‘프랴트레스(형제들) 12첼로 버전’을 연주한다.

무대에는 아르토 노라스·드미트리 쿠조프·클라비오 보호르케츠·마야 보그다노비치·이상 앤더스·안드레이 이오니치 등 외국인 연주자와 김민지·장우라·이상은·이경준·양성원·송영훈 등이 오르며, 소프라노 이명자가 협연자로 함께한다.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5만원이며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문의 062-613-8235.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예총, 청소년예술제 본선 다음달 11일 개최

한국예총광주광역시연합회(이하 광주예총·회장 임원식)는 “2021전국청소년예술제” 본선을 오는 11월 11일 오후 3시 광주시 북구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 1회를 맞는 2021 전국청소년예술제는 문화예술의 고장 광주에서 지역 예술의 발전과 예술 꿈나무인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초, 중, 고등학생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국악, 실용음악, 현대·실용무용, 연극 및 뮤지컬 등 4개 부문에서 경연이 진행된다.

접수마감은 10월20일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선전은 10월 30일 비대면 영상심사로 진행된다. 접수방법은 네이버폼(<http://naver.me/xKQiwBnM>)을 통한 접수와 이메일(jett1@naver.com)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광주예총 홈페이지 대화요강을 통해 알 수 있다.

본선 및 시상식에서는 예선에서 뽑힌 각 부문(1등) 경합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하순 출신 김영진 시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문의’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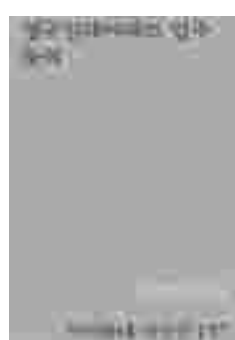
“생각이 흩어졌다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 있다. 마치 종이로 만든 동서남북, 네 모서리가 일순간 모이는 때다. 사는 동안 웃고 떠들고 뒤엉킨 하루, 그 모서리들이 모여 한순간 시로 태어날 것을 믿었다.”

하순 출신 김영진 시인이 첫 시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문의’ (시인동네)를 펴냈다.

그의 시에서는 그늘진 곳을 바라보는 애잔한 시선이 느껴진다. 오랫동안 시를 애뜻하게 창작해오던 동안 화자의 내면 또한 깊어졌다는 의미다. 사회복지사로 살고 있는 그의 삶이 그의 작품을 보

여주는 셈이다. “...가게 빛 쫓들리던 아주머니는 희망보다 절망이 익숙하고 죽음은 삶보다 두렵지 않았다// 여섯 분 돌아가신 뒤 자리가 빈 영구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있느냐 문의 이어졌다// 당장 들어가기 힘들고 신청자 많아 일 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답 들었다”

표제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문의’는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화자의 심상이 담겨 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단면이면서 우리 사는 세상의 한 장면이기도 하다. 작품 속의 죽음



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도처에 산재한다는 사실을 아프게 보여준다. 이밖에 작품집에는 역사와 일상을 다룬 작품들도 있다. 역사를 관통하는 눈 또한 목소리가 높지 않고, 따뜻한

시선이 드러내져 있다. 한편 김영진 시인은 2017년 ‘시와사람’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공무원노동문화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도립미술관, 제2차 소장작품 구입 공모

전남도립미술관이 2021년 제2차 소장작품 구입 공모를 시작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미술 시장에서 작품활동이 어려운 청년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남지역 청년 작가 작품을 우대했던 지난 7월 상반기 공모와 달리 2차 공모는 신진 자격을 완화해 작가, 작품소장자, 화랑 등 작품을 소장 중인 예술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지역 소재 공립미술관으로서

지역 미술사 정립을 위한 작품을 공모와 국제적인 현대미술관으로 도약하고자 다양한 현대 미술사 흐름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전남 미술사 정립 및 전남도립미술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작품과 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 기간은 20~22일까지며 등기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b>무크 광주세정점</b> 광주시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지있는 스타일의 가솔린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b>다흥치마 한정식 전문</b>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생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b>해미패션</b>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계량한복·무대의상·작품한복전문 ☎ 062)224-5958, 010-6777-5958	<b>법무사 황영수 사무소</b> 광주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3, 검찰청대백리빌 소송, 민사신청,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담등기 각종 법률무로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b>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b>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b>문화결혼상담소</b>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b>동양철학원</b>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b>필스제화</b>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b>인철(仁喆)익스프레스</b>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b>(주)K&amp;J컴퍼니</b>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255, 3층 미래를 생각하는 제테크, 신재생에너지 제테크 원금보장, 안정된 높은 수익 ☎ 1899-1972	<b>한국기원</b>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	<b>석당화랑</b>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b>고전방</b>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b>남도철학원</b> 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b>신신예술의집</b>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b>씨니헤어샵가발</b> 나주시 성북동 4거리삼성디지털프라자 옆 최신식 두피 케어 전문 컷트, 파마, 염색, 탈모관리, 히피펌 전문 전화예약 ☎ 010-3996-0489	<b>송가네반찬</b> 광주 남구 백운로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b>초대화랑</b>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b>동태랑대구랑전문점</b> 나주시 남내1길 4-1 각종 모임 환영 ☎ 010-2127-0888	<b>박당화랑</b>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대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				